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監査室

日時 1995年11月21日(火) 午前10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10時 33分 監査開始)

○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7條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監査室을 대상으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가 21日, 22日 兩 이틀간 실시됨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監査室을 대상으로 하여 第4代 市議會開院 이후 처음으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는 데에는 所管業務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是正하고 市民들의 입장에서 行政을 監視, 統制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議案審査 또는 豫算審査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획득하고 執行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開發하고 提示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監査室을 대상으로 하여 市政全般에 걸쳐 그 기능을 다하였

는지 다방면에 걸쳐 委員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執行部の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行政事務監査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行政執行의 방향과 대안을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가 있기 전에 地方自治法 第36條第5項 및 同法施行令 第17條의4第4項의 規定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僞證한 關係公務員은 고발 될 수 있으며, 委員會의 出席要求를 받은 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證言과 意見陳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皮監査機關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宣誓는 監査室長과 4級 이상의 公務員이 하게 되겠습니다. 對象公務員은 起立하시고 監査室長은 發言臺에 나오셔서 宣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太壽; (宣誓)

○委員長 吳世根; 監査室長은 宣誓文에 署名捺印 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은 着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監査室長의 인사와 幹部紹介가 있겠습니다. 監査室長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幹部紹介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太壽; 監査室長입니다.

존경하는 吳世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1995年度 監査室 行政事務監査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한해 동안 監査와 調査活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監査室은 새로운 民選市長時代를 맞아서 市政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監査方向과 制度를 整備 補完하여 行政의 효율을 提高하고, 浪費要素를 제거하고, 行政目的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組織의 향도로서 室長을 비롯한 모든 監査要員이 心機一轉해서 熱과 誠을 다해서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市政을 수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모든 우리 監査要員이 熱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께 많은 指導鞭撻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監査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거나 여러 委員님들의 많으신 충고 또는 提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市政에 반영하고 저희 監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情報로, 또 좋은 提言으로 저희가 열심히 業務를 改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改善을 했습니다만 금년 監査에서도 많은 지적과 충고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業務報告에 앞서서 監査室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監査1擔當官 羅鎮求, 監査2擔當官 車天福, 調査擔當官 金忠民, 民願擔當官 金奉鉉,公職者倫理委員會事務擔當官 文永模)

이상으로 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이어서 監査室長의 業務現況 報告가 있겠습니다.

니다.

監査室長은 나오셔서 所管業務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太壽; 資料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감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다음은 監査諮問委員會 運營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本會議에서 報告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議會에 條例로 制定하는 案件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당 內務委員會에서 다시 審議를 해 주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당초에 監査委員會로 이렇게 檢討를 하다가 저희가 審査하는 과정에서 市長, 副市長, 各 局長이 전부 모인 과정에서, 또 監査院의 意見도 監査委員會는 아직 좀 時機尙早가 아니냐, 또 監査院의 監査委員會와 혼동될 우려도 있고, 또 아직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委員會로의 독자적인 運營이 좀 어렵다 해서 諮問性格을 강조하는 그런 諮問委員會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

(보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가 懸案問題를 비롯해서 來年度 主要業務에 대해서 報告를 마치면서, 아까 冒頭に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 이번 監査를 통해서 여러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內容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문제를 改善한다든지 業務에 반영해서 市民의 삶의 질을 높이고, 市民이 더 편하게, 市民이 더 市政을 信賴할 수 있는 이런 市政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監査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와 被監査機關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議事進行과 충분한 答辯을 위하여 一括質問하고 一括答辯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補充質疑에 대하여는 一問一答式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海純 委員 質疑하십시오

○鄭海純 委員; 그 동안 行政監査資料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밤잠도 자지 못하고 徹夜로 이 行政監査資料를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心機一轉 즉, 앞으로 여러 가지 96年度의 監査方向이라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方向 設定問題 이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 資料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未備點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業務報告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監査室長께서 報告를 하는 가운데 3페이지 既已 現況을 報告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監査人員을 상당히 줄였어요. 43名인가 이렇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여기에 대한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그리고 그 減縮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現況을 얘기를 안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事項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같으면 이 43名이라는 人員이 물론 特殊案件處理, 즉 稅務非理라든지, 뭐 機構改編關係를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다 處理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43名이라는 막대한 人員을 減縮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나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參考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民願處理하는 데 있어서는 民願處理期間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民願處理期間이 있는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官願處理期間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官願處理期間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의 官願處理期間에 위배된 事項이 있는지 없는지, 監査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身分上 조치 인원이 147名, 이 가운데에서 優秀公務員 褒賞이 몇 명이 안돼요. 20名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措置人員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너무나도 優秀公務員에 대한 褒賞이 적다, 20名밖에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 위축된 監査로 인해서 士氣가 低下된 公務員에 대해서 그래도 士氣振作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그 優秀職員에 대한 褒賞을 장려 할 필요가 있다.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그런 관계가 인색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用意는 없는지, 優秀職員 褒賞, 즉 말하자면 行政上 措置 971件, 是正이 831件, 改善

이 54件, 注意가 86件, 이라서 身分上 措置 人員이 147件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名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10月인가 우리가 業務報告 때 LP가스 즉, 경향신문에 報道된 여러 가지 不實埋設이다 해서 위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가스를 한번 現場 확인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點檢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永登浦 내 出身區域인..... 되도록이면 어느 지역을 설정을 안하지만 新吉4·5·6洞에 LP가스 매설 파이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地域을 선정해서 거기를 한 번 해 봐서, 모델 케이스로 해 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圖面으로 해서 是正措置事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그리고 96年度 主要施策에 대해서 무엇 무엇 여러 가지들 즉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기 施策을 보면 日當的인 業務 그 대로의 내용.....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것이 별로 없다, 단 한 가지 특이하다 할 것 같으면 市民監查請求制, 監查制度 運營 改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市民監查請求制, 監查諮問委員會, 뭐 監查實名制, 아마 監查實名制는 딱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특이한 事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業務處理 즉, 自治團體가 施行됨에 따라서 문제가 안 돼요, 公務員들간에. 예를 들어서 永登浦區廳에 있는 사람이 九老區廳

과 交流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면 業務를 서로 익히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라도 區廳間 交流監査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한 점, 잘못된 점, 이것을 서로 알려 주고, 또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是正할 것은 是正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區廳間 交換監査制.

그 다음에 나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秘資金 조성이다, 또 여러 가지 政治資金 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公務員들이 그 동안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실은, 왜 政治資金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몰랐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被害者예요, 일종의. 그래서 무엇을 하라, 監査도 제대로 하려면 못하게 압력이나 가하고, 뭐 許可 안 될 것을 許可해라,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靑瓦臺에서 秘書官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강력한 權力機關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 民選自治 市長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이런 論理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市政幹部들이 清廉潔白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무슨 制度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宣誓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지, 나는 그 전에,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地方에 있다가 政務長官室에 가 있을 때, 政策部署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俸給을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辦公費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고, 나는 익숙해져서 내가 내려고 했더니, 내가 돈도 없지만. 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엇인가 느낀 것이 지금 있어요. 자연

히 여기는, 地方助長行政 系統은 식사하러 가자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내요. 그래서 弱點을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점심이지만 저녁에 가면 요정에 간다, 뭐 한다, 2차, 3차 해서 弱點을 잡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묵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인간적인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幹部들이 清廉潔白하게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이런 것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辦公費가 생기고, 情報費가 생기고, 또 課를 運營하기 위해서 運營費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市廳 公務員, 幹部 公務員에 대해서 清廉潔白함을 무엇인가 이뤄져야 되겠고, 그렇게 措置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監査室 자체에, 물론 여기에 정례화다, 뭐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나는 생각할 때 監査室 職員들이 너무나 수고는 하고 있지만 舊態依然하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가 아니고 區廳 監査室 職員들이 舊態依然하다는 것을 내가 얘기 들었어요. 市廳 公務員들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모르지만 參考的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포청천 趙 淳이라고 하는, 아까 뭐 민성..... 뭐 運營하고는 있지만 이래서는 이거 뭐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 民聲函이라든가 이것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유출이 돼요. 누가 어떻게 했다 해서 그것이 다 유출이 된다고, 그래서 기피를 해요. 무엇인가 획기적인, 民聲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제대로 운영을..... 청취할 또는 수

집할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96年度の 監査關係 방향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現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監査室長이 意志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

崔光雄 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

○崔光雄 委員; 崔光雄 委員입니다.

우선 本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資料問題를 좀 言及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委員長께서 地方自治法과 關係規定들을 인용해서 行政事務監査가 法的인 法律에 規定된 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法에 規定된 대로, 法令에 規定된 대로 우리 監査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이 宣誓를 아까 한 바 있고요, 구체적으로 地方自治法 第36條, 그 다음에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6條 내지 19條,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 이런 등등에서 法的으로 規定하고 있고, 또한 資料要求 이 부분이 地方自治法 第35條의2, 그리고 同施行令 第15條3에 의해서 市長에게 資料提出要求를 늦어도 3日 前까지 要求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內務委員會는 지난 달 20日에 이미, 상당히 훨씬 전에 우리 事務處 職員들이 협조요청을 받아서 資料要求書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法令이나 條例에 특별히 規定하지 않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行政事務監査 이외에도 議政活動에 필요할

경우에 資料蒐集을 의뢰할 수 있고 또 성실히 응하도록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처음에 資料要求를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現況資料, 統計資料나 이렇게 줄줄이 내서 도대체가 업무과약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資料 첫 페이지에다 目次라도 하나 해 주면 좀 參考할 수 있을텐데 찾아보려면 일일이 뒤지고, 다시 뒤지고, 本委員같은 경우도 이것을 보려고 열 번도 더 일일이 찾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趙市長의 定例幹部會議 指示事項을 한번 봤어요. 우리 市義會 관련부분이 어떤가. 8月 14日 臨時會, 市義會 臨時會를 준비하면서 定例幹部會議 때 指示事項이 있더라고요. 우리 監查室長께서 參席하셨을텐데 이 常任委員會別로 市議員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져 긴밀한 협조 속에서 市政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指示事項이 있어요. 무슨 애긴지 아시지요?

어제 本會議 施政演說, 96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하여 우리 趙市長께서 施政演說을 하시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니다. 항상 우리는 議員님들의 高見에 귀 기울이며, 市政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동반자적 관계요. 이 동반자한테 뭘 감추고, 뭘 숨기고, 뭘 안 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서로 같이 市政發展을 위해서 같이 論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지.

우리 趙市長께서 行政學에서 얘기하는 우리 나라와 같은 地方自治制度는 기관대립형 구조로서 상호 牽制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는데 그런 특징을, 地方自治制度의 특징을 모르는 바

아닐텐데, 趙市長께서. 이 동반자적 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 元年, 처음 실시하는 行政事務監査란 말이에요.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本質問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아까 鄭委員님께서도 盧泰愚 秘資金에 대해서 잠깐 言及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서울市議會가 議員手當, 그리고 議政活動費에 관한 條例를 통과시키고 참담한 심정을 本委員도 담아서 이 統計資料를 내 봤습니다. 盧泰愚 大統領이 執權 5年 동안에 2,359億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지난 16日에 청구된 拘束令狀에서 나타난 금액이 2,359億원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市議員들, 어저께 통과된 條例에서 월 60萬원의 活動費,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會議에 나와서 會議手當 720萬원, 月로 치면 한 60萬원이지요. 이거 다 받아서, 이 盧泰愚 秘資金事件 이후로 뭐 여러 가지로 計算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計算해 봤어요. 우리 市議員들 월 120萬원씩 16382年, 한 푼도 안쓰고 다 모아야 되더라고요. 4年 任期씩 따져서 4,095번이 당선돼야 2,359억원 모으 겠다고요.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말로 議政活動을 수행하는 우리 市議員들한테 우리 市廳의 公務員들 정말로 마음속 으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本委員이 要求한 資料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盧泰愚 執權 5年 동안에 서울시 公務員들 金品收受로 이해 懲戒받은 숫자, 그 중에서 金額이 밝혀진 것이 349名이더라고요. 금액 합계는 14億 9,344萬원, 1人當으로 치면 427萬 9,200원, 누구는 몇 천억씩 해먹고, 누구는 몇 만원, 몇 십만원의 退職金도 못 받는, 公務員들에게는 死刑宣告나 다름없는 罷免措置된 사

람도 5年 期間 동안에 40名이나 있더라고요. 罷免된 公務員들의 평균 授受額이 얼마인가 보니까 토탈해서 즉 평균 내보니까 1,050萬원이에요. 92年度에는 中區廳에서 근무하는 公務員이 돈 80萬원 받아먹었다고 해서 罷免되고, 88年度에는 江南區에서 돈 10萬원 받았다고 해서 罷免 됐어요. 너무나도 큰 괴리감..... 俗設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안 걸리고 末端職員들이나 희생 당하고, 이 俗設이 立證되더라구요 이 資料를 보니까. 5級 이상 幹部職들은 40名 罷免된 公務員들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구요. 나머지 39名은 대개 다 8級, 9給, 技能職 末端 들이에요. 저 꼭대기에서부터, 大統領이라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 幹部들까지 俗說로, 우리 一般 市民들이 큰 도둑들은 안 잡히고.....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이 公職社會가 非理에 둔감해지지요. 이 非理增加 추세를 한 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本委員이 요구한 資料중에서 최근 1年間 金品수수 관련 懲戒者內譯을 분석해 봤습니다.

금액이 확인된 사람들이 77名, 총 금액이 3億 8,374萬 5,300원, 1人當으로 치면 498萬 3,700원이에요. 아까 제가 盧泰愚 때는 평균 1人當 뇌물 먹은 것이 427萬9,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소위 文民政府가 出帆한 이후 최근 1年間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이 먹은 것이 1人當으로는 498萬 3,700원, 盧泰愚 5年보다 오히려 지금 文民時代라고 하는 이 時代에 금액으로는 16.5%, 금액으로 16.5%나 뇌물액수가 증가했어요, 1人當 액수가.

(「物價가 올랐잖아.....」 하는 委員 있음)
맞습니다.

物價가 올랐으니까 뇌물액수도 올랐어요.

정말로 이번 事件을 계기로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司正이니 監査니 이런 것 없더라도 公務員 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정말로 認識轉換 發想轉換해야 돼요.

冊子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6月 13日 우리 趙淳 市長께서 民主黨 서울 市長候補 시절에 발표한 政策 및 公約 發表 資料集입니다. 당시에 選舉對策本部長하던 우리 李海瓚 政務副市長을 비롯해서, 責任者로 해서 만든 資料예요.

이 公約事項이 지켜지는가 우리 監査室에서 點檢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市政 3大 원칙을 指示했는데 그 첫 번째가 改革하는 市政이라고 그랬어요. 改革하는 市政, 세 부계획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변화하는 서울, 두 번째가 깨끗한 公務員, 그리고 세번째가 투명한 市政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정말로 珠玉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은 두번째로, 큰 두 번째로 建築·住宅分野는 監査死角 地帶인가 하는 제목으로 質疑 하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自體監査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非難을 받습니다만 이 建築이나 住宅分野는 유난히 監査라든지 調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分野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즉, 建築·住宅分野를 단속하는 監査業務도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監査室 職員 중에 建築이나 住宅 관련한 職列은 말할 것도 없고, 行政職 중에서도 이전에 建築·住宅分野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職員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着眼해서 資料要求한 내용이 있고 그 동안 統計資料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우선 建築·住宅分野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치로 제시하겠습니다.

94年度와 95年 10월까지의 期間에 監査室 民願擔當官室에서 處理한 請願 및 陳情件數 총 1萬 2,632件 中에서 建築 住宅分野가 34.4%이예요. 1/3이 넘어요. 4,343件이고, 이 94年 및 95年 10월까지 같은 기간이지요. 이 期間 동안에 발생한 集團民願이 총 107件的 集團民願이 발생했는데, 근 한 50%에 해당하는 49.5%인 53건이 바로 建築 住宅分野이예요.

95年 10月 현재 금품관련 비위적발자, 아까 얘기했던 금품관련 비위적발자 총 81건중에서 이 建築 住宅分野 件數가 16%, 13件이나 돼요. 이만큼 建築 住宅分野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年度부터 95年 10月 현재까지 監査室에서 발굴한 垂範公務員이 있습니다. 垂範公務員을 39名 발굴했는데, 建築職公務員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建築이나 住宅分野에 대해서는 監査를 뭐 살살 했는지, 아니면 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監査室 職員 분포를 봐도 그렇습니다. 5級 이상 幹部 25名 中에서 技術職은 단 2名, 建築職은 아예 없지요. 제로포인트, 그 다음에 중추감사요원인 6級, 7級 감사요원, 151名 中에서 技術職은 뭐 17.2%, 26名, 그 중에서도 建築職은 3.9%이예요. 단 6名, 市民의 1/3이 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34.4%가 建築 住宅分野 請願 및 陳情이라고. 市民의 1/3이 넘는 숫자가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이 建築 住宅分野에 대해서 포청천의 칼날, 市長이 서울 포청천이면 우리 監査室長이하 우리 監査室 公務員들이 전호위에요, 전호위. 포청천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결론이 나와요. 民選時代 출범으로 市民들에게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市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부터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은 이 組織改編 때, 물론 기본적으로

定員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이런 專門分野, 監査要員 充員을 기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敎育도 마찬가지로요.

敎育課程을 봅시다. 제출된 資料 보니까 監査室 자체 監査要員 敎育課程을 보니까 專門 敎科目도 죽 살펴보니 너무千篇一律적이고, 특성에 맞는, 來년도 業務報告에는, 來년도 計劃에는 事例研究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改善해야 되고, 素養敎育이라고 해서 北韓政治犯 수용소의 참상 비디오나 보고, 70年代도 아니고 이런 것 뭐 하러 해요, 바쁜 사람. 인원도 부족해서 배정된 監査業務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런 것 뭐하러 해요, 국민학생이요?

그래서 本委員은 대안으로 素養敎育으로는 우리 市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監査要員像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한 다거나, 연구를 못할 것 같으면 뭐 市政開發研究院에 의뢰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해마다 중점분야를, 敎育하는 중점분야를 정해서 特別敎育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시급한 建築 住宅分野에 대해서 施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提案을 해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監査室 職員의 職務別 同一業務 平均勤務期間, 이것을 分析해 봤습니다. 제출된 資料는 미흡해서 本委員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監査室 중추에 해당되는 6·7級 要員들, 新設된 지 얼마 안된 監査2擔當官室이나 우리 倫理擔當官室을 빼면 나머지 4개 擔當官室, 91名の 6級, 7級 監査要員들의 평균 在任期間을 보니까 1年 4個月 18日로 나오더라고요. 公務員任用令에서는 監査要員 轉補制限期間을 2年 이내로 規定하고 있습니다. 監査分野의 전문성을 法令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規定대로도, 規程된 法令대로도 제대로 못 지켜

요. 오히려 너무 오래 근무해서 非理가 발생할 염려가 될 정도로, 이런 정도는 돼야지요. 이런 정도로 정통한 專門家가 돼야지요. 各 職員들이,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技術職 등 專門要員이 없고 行政職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人事交流다 뭐다 자꾸 바뀌게 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 다. 따라서 대안으로 역시 技術職을 늘리고 專門家를 양성해 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요.

큰 세번째입니다. 本委員이 監査室 所管 各種 條例와 規則, 指針 뭐 등등, 各種 法令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整備해야 될, 整備對象 各種 法規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우리 趙市長 指示事項을 한 번 인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月 12日 條例, 規則 審議會議 때, 指示事項 第23號입니다. 行政環境 變化에 뒤떨어진 市政임에도 불구하고 그 改正을 소홀히 함으로써 市民不便과 行政의 비효율을 계속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是正하라고 指示한 바가 있습니다. 市長 指示事項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서울特別市行政監査規則이 70年度에 制定되고 가장 최근에 89年 3月 27日에 改正된 것이지요? 第8條, 第9條第1項, 第2項 第15條, 第26條第2項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1條 이런 등등에서 보면 監査官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監査室로 바뀌었는데, 95年 3月 20日 서울特別市 行政機構設置條例에 의해서 監査室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法規들에 흩어져 있는 監査官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監査室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어제

本會議場에서 우리 同僚議員도 관계 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提案說明하는데 監査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監査室부터 가 감사관이 맞는 것인지 監査室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니까 우리 所管이 아닌 다른 議員들이 당연히 헷갈리지요.

그리고 監査室所管 例規指針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울特別市監査公務員證發給指針, 95년 5월 15일에 마지막으로. 改正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가 改正된 것이 3월 20日인데, 금년도. 그 뒤에 改正된 것이에요, 이것이. 監査公務員證 發給指針이 5월 15일에 改正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에도 第2條를 비롯해서 열다섯 군데에서 監査官室 또는 監査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월 20일에 그 上位條例가 改正됐는데 그 下位 일개 指針이 아직도 이대로 남아 있어요. 왜 반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監査規則 第44條를 보면, 특전규정입니다. 監査公務員으로서 1年 이상 근무하면 評定에 있어서 우대하고, 2年 이상 근무한 者가 轉補될 경우 本人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業務報告에서도 監査室長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해서, 또 定員縮小方針에 맞춰서 支援部署, 서포트 部署인 우리 監査室, 企劃管理室, 內務局 이런 등등에 優待制度, 本委員이 第79回 臨時會 첫 번째 業務報告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특전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現業部署, 民願部署들, 事業部署들을 優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면 우리 監査室 公務員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전 대안으로 이런 것을 提案하고 싶습니다. 우리 監査室公務員들 인센티브制度, 소위 實績評價制度를

도입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行政監査規則 第38條에 보니까 표창추천규정이 있어요. 公務員 일반이 아닌 特定部署, 監査業務에 從事하는 公務員들 표창추천규정 그 자체부터가 대우받는 것이니까, 이미. 이 規程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法令上, 그 다음에 制度上, 行政上 改善한 功績이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한다는 그런 規定을 추가로 넣어서 표창규정을 좀더 본 위원이 세 가지 提案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화하고 개량화해서 우수한 監査公務員을 계속해서 優待할 수 있는 方案을 만들고 本條 第44條에 있는 특전규정은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작은 3번입니다.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懲戒量定에 관한規則, 81年度 11月 制定되고 94年, 작년 8月20日에 최종적으로 改正됐는데 별표1의2, 懲戒量定에 관한 개별 기준을 보면 생경하고,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文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行政用語 순화차원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무계결근, 지참, 지각 참석이라고 해서 지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무단이석, 출장미귀, 이런 낡은 용어들 아직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時代에 안 맞는 낡은 規定도 있습니다. 고급유홍장 출입, 職務와 관련하여 業者와 요정 출입, 상습적인 고급요정 출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정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懲戒量定基準 및 懲戒量定에 관한 個別基準을 살펴 보면 罷免에 해당하는 基準이 사기, 절도, 강도 및 강간, 이런 등등 反倫理事犯, 政治運動 및 集團行爲로 刑事上 起訴, 公金이나 公物 횡령, 違法不當한 業務處理, 特惠措置 등 條件으로 상당한 金品收受, 故意 公文書 위조, 변조, 故意 公文書

과기, 故意 公文書 망실, 秘密文書 분실 등 여덟가지만 規程하고 있습니다. 이 罷免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 여덟 가지 이외에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量定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豫定價格 누설이 겨우 停職 이상이고, 各種 認許可 違法 不當處理 減俸 이상이고, 자칫하면 三豊같이 大型 事故까지 유발이 가능한 불완전한 建物竣工이 겨우 견책 이상이고, 또 大型火災 유발에 정직 이상, 새로운 民選時代, 안전한 都市, 環境都市, 住民安定이 이루어지는 都市,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 規定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너무 낮은 基準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을 높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基準을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提示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94年, 95年 寬容審査 실적을 살펴보니가 懲戒量定 決定이 감해진 경우에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寬容審査請求者의 55.8%가 인용되고 있고, 95年 11月 현재 懲戒處分 後에 訴請을 통해서 결정된 210件 중에서 25.7%에 달하는 54件이 변경된 점을 보더라도 이런 통계치가 있잖아요. 基準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감사실 자체가 어려우면 市政開發研究院에 의뢰하면 되지요. 整備,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네번째요. 市民不便申告事務處理規程, 89年 3月 20日 制定되어서 한 번도 改正된 적이 없는데요, 第3條 시정통신엽서 接受 第1項, 第6條 등등에 보면 區廳 企劃監査課라고 표현이 나와요. 區廳에 企劃監査課가 어디에 있어요, 지

금? 區廳에 監査室이 있지.

그 다음에 별지 第1號 서식, 시정통신엽서 뒷면에 서울 特別市長 드림이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市民들이 요소 요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정통신엽서의 내용도 88年 올림픽 때 만든 것이라 지난 서울올림픽 때 보여 주신 뒤 어찌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정통신엽서가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만 서울特別市長, 趙 淳市長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 지난 서울올림픽 때 보여주신, 어찌고 저찌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고쳐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상 法規問題는 했고요. 큰 네번째로, 이 힘 있는 靑瓦臺라지만 권리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監査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힘 있는 靑瓦臺, 大統領 秘書室에서 이첩한 請願書, 陳情書 處理結果를 보니까 文民時代를 실감하는 통계치를 發見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이월을 포함해서 95年度 大統領 秘書室 이첩분 陳情書 處理結果, 총 件數가 505件, 이 중에서 480件이 終結되고 이월된 것이 5%, 24件이지요? 그리고 解決率이 378件에 74.9%로 나타납니다.

한편 우리 監査室 자체에서 接受하고 處理한 請願, 陳情은 95年度 10月末 현재 總 4,825件에 4,545件을 處理하고 5.8%를 移越시켜서 해결한 것이 3,606件, 79.4%로 나타나요. 大統領 秘書室 이첩분이나 우리 監査室 자체에서 한 것이나 解決率이 74.9% 대 79.4%, 移越率 5% 對 5.8%,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두 수치를 비교해 볼 때 解決率이나 移越率, 그 다음에 移越率은 말하자면 처리속도를 반영한 것이지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느 특정한 곳

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빨리 處理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정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이 추세를 우리 監
査室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혹 앞으로 외압이 오더라도 이 統
計資料, 本委員이 오늘 제시한 이 統計資料를 가지고, 根據를
가지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機關과 機關間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權威主義 通治時代의 잔재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우리 市民들
은 問題가 발생한 당사자인 機關을 찾아가지 않고 아직도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힘 있는 곳으로 힘있는 곳으로
民願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방금 숫자 본대로 靑瓦臺가 接受한, 大統領 秘書室에
서 接受한 請願, 陳情이 우리 民願主務部署인, 서울市 民願,
陳情主務部署인 監査室의 근 한 10%나 육박하니까.....

아직도 우리 市民들이 높은 곳으로만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市民들에게 혹시 더 높은 機關으로, 힘
있는 機關으로 찾아가더라도 다시 정위치로 제대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處理速度도 똑같이 공평한 것을 알려
주고, 정말로 文民時代, 진짜로 民選時代가 도래했음을 피부
에 와 닿을 수 있도록 民願處理 해 주고 또 弘報하고 이런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質疑申請이 없으므로 被監査機關의 성실한 答辯
準備를 위하여 감사를 中止한 후 14時에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4分 監査中止)

(14時 23分 監査繼續)

○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監査室長은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太壽; 鄭海純 委員님께서 먼저 質疑를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崔光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부터 먼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光雄 委員님께서는 전부 큰 지적으로 네 가지를 하셨고, 그 중에 또 하나 한가지 요목에서 네 가지가 돼서 전부 한 여덟 가지 정도 質問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충고를 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資料를 委員님들께 제공해 올림에 있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또 아주 충실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量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저희가 이런 資料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더 성실하게, 더 충실한 資料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추후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資料를 은폐한다든지, 저희가 감추기 위한 그런 뜻은 추후도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市長님 指示대로 議會와 우리 執行部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숨김없이 또 市長님의 의지가 일체의 行政을 市民께 소상히 公開하는, 公開行

政을 하시겠다는 것이 市長님의 意志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추호도 거짓이나 숨김없이 資料를 제공하고, 또 오늘도 答辯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모든 資料를 만듦에 있어서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것이 6共에 들어서서 金品授受를 件數나 금액과 또 文民政府가 들어서 金品授受의 公務員들의 件數나 금액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 개인당 평균을 했을 때 더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非理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市의 職員이 大悟覺醒하고 정말로 民選時代를 맞아서 대 자세 轉換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事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로 저희 市職員 모두가 다같이 委員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大悟覺醒하고 자세를 전환할 시점에 있고, 특히 監査業務를 擔當하는 監査室 職員들의 자세는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하나의 清廉性을 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우리가 市 모든 職員의 垂範이 되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삼스럽게 합니다.

두번째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建築 住宅分野, 뭐 소상한 그런 통계를 내 주셨고, 또 상당히 저희 監査室 職員에 대해서 專門性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또 建築이나 住宅分野의 근무 경험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金品授受건에 대에 있어서도 비위공무원중에 住宅이나 建築分野에 근무하는 職員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垂範公務員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建築職이 1名도

없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또 監査室 職員 분포로 봤을 때 5級 이상의 技術職이 2名이 있는데 建築職은 1名도 없고, 6·7級 중에 불과 6名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組織改編을 하게 될 경우에 專門職을 좀 充員했으면 좋겠다.

또 監査室의 教育資料가 너무 時代狀況에 맞지 않게 教科課程이나 教育課程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市民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監査要員像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너무 職員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평균 在任期間이 法에 2年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형편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專門職을 육성하는데 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報告를 드리면, 실제로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림 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정확한 資料를 가지고 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監査를 한 실적인 금년 9월에 民營住宅 認·許可 處理實態監査 등 해서 다섯 번을 했고, 그 결과 114名이 身分上 措置를 했고 3億 3,400萬원을 追徵하고, 建築士 55名에 대해서 저희가 行政處分을 한 그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機構調整과 定員問題는 지금 機構는, 아까 鄭海純 委員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시다만 機構나 定員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崔秉烈 市長 계실 때 부터 民選市長 時代를 맞이하면서 民選市長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한다는 뜻에서 먼저 이미 서울시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분석을 해서 民選市長께 넘겨 드리면서 거기에 組織改編案도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넘겨 드렸고, 새로 오신 市長님께서

도 民選時代에 맞는 이런 組織과 機構를 改編하기 위해서 지금 목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監査室에 대한 조직이나 機構改編이나 定員의 調整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監査室 자체로 案을 내 놓기는 지금 人員이 너무 行政職 위주로, 아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行政職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人員을 줄일 때 오히려 技術職은 좀 늘리려는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計劃하고 있기로는 32名の 職員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이는데 오히려 技術職은 10名을 增員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職制에 반영이 된다면 建築職이 담당하는 係를 하나 설치해서 建築職 5級을 한 사람 係長으로 저희가 補職을 하고 거기에 建築職 3名을 더 充員할 예정이고, 土木職 3名, 環境職 3名, 機械職 1名, 요전에 本會議에서도 한 번 質疑가 계셨습시다만 藥務職이, 저희가 藥師나 醫師를 監査하면서도 藥務職이 없기 때문에 藥務職도 한 사람을 監査要員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해서 저희가 技術職 10名은 增員토록 그렇게 지금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는데, 지금 企劃管理室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改編安이 아직 市の 案이 확정인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인 報告를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組織改編이 될 때 저희 監査室 定員調整을 함에 있어서 委員님이 걱정하신 그 분야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住宅이나 建築分野에 대한 職員의 보장은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監査要員의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말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市民과 가까워질

수 있는 素養教育과 專門的인 知識을 涵養할 수 있는 住宅 建築分野에 대한 特別教育을 教育..... 編成資料에 꼭 포함시켜서 좌우간 더 專門的인 그런 知識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報告드리면서, 委員님께서 두 번째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마칠까 합니다.

세번째로 委員님께서 監査室 소관 法수를 檢討해 보니까 整備를 하거나 改正을 해야 될 法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行政環境이 변화하는데 뒤떨어진 規定을 아직 가지고 있느냐, 市長이 지시를 했음에도 너무 소홀하게, 또 신경을 못쓰고 운영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도 제가 여기서 다르게 변명드릴 그런 말씀은 없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行政監査規則을 왜 그 것을 안 고치느냐 이런 말씀인데, 5月16日字로 監査官室이 監査室로 改編 되었음에도 왜 그 뒤에 여러 가지 行政監査規則이나 監査公務員證發給規程 등 여러 가지 規程에서 표기를 못 고쳤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行政監査規則의 改正案은 企劃管理室로, 저희가 條例規則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서 지금 企劃管理室에 가 있습니다. 늦어도 내달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지금 委員님이 지적하신 監査官의 표시를 監査室長으로 하는 것이 여덟 군데쯤 되고, 또 저희 지금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改正이 필요한 事項을 발췌해서, 또 監査週期를 고친다는 등 지금 현실에 맞게 規則을 整備하고자 완전히 저희가 成案해서 지금 改正作業 중에 있음을 報告드리면서 監査公務員證發給規程이다든지, 또 지금 현실적으로 行政環境 변화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規程에 대해서는 일

제히 고치도록 할 것이며, 더 나가서 企劃管理室의 法務官室을 통해서, 法務擔當官을 통해서 모든 法令 改正을 할 때 이 부분은, 뒤 監査官室뿐이 아니고 다른 組織이나 또 副市長도 한 분에서 세 분으로 되면서 그냥 副市長으로 표시된 이런 案 등 해서 여러 가지 職制 改正에 따른 이러한 표시는 모두 일제히 바뀌지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1年 이상은 評定優待를 해주고, 監査規則 第44條에 보면, 2년 이상 근무해야 轉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轉補할 때는 補職에 優待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특전이 아니냐,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대안으로 實績評價制 도입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褒賞을 한다든지 表彰을 한다든지 하는 등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의 士氣를 振作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 였습니다만, 評定 優待 등 監査公務員에 대한 특전조항의 개정문제는 大統領令으로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고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 고, 다만 이것은 하나의 우수한 公務員을 監査要員으로 선발 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것이고, 監査公務員의 士氣昂揚問題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監査室長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존속돼야 우수한 職員을 확보해서 사명감 있는 직원들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 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다른職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특별히 꼭 優待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좋은 요원을, 또 士氣振作을 위해서 아직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世根; 車星煥 委員, 補充質疑입니까?

○車星煥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委員長 吳世根; 간단하게 해 주세요.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런 이익을 받으면서 아까 우리 崔委員 발언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보통 기간이 1年 4個月 정도 밖에 勤務를 안하고 또 發승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수만 얻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太壽; 네.

그런데 통계를 崔光雄委員님께서 어떻게 추출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했.....

○崔光雄 委員; 어떻게 추출했느냐 하면요. 전부 나눠서 各課別로 定員 곱해서 개월수로 환산해서 전부 곱해서 그것을 다 토털해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이에요. 1年4個月 18日이.

○監査室長 金太壽; 아니 글썄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資料는 職員들이 저희 監査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職務期間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모든 職員이 職制의 改正이나 本人의 희망이 아니고서는 2年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本人이 희망했거나, 職制가 改正되어서 편제가 바뀌어서 강제적인 이런 전보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2年の 職務期間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 監査室의 職員勤務期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年 4個月 18日로까지 調査를 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또 지금 車星煥 委員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뭐 評定優待만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점수도 그렇게 뭐 많이 評定에 優待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監査室에 오는 職員들이 모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의 優待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페이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또 맨 끝에 지적해 주신, 대안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아까 業務報告 드릴 때도 그 業務報告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委員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實績評價制를 도입해서 우수한 監査實績을 거양했거나 모범적인 監査를 수행한 職員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어디 해외여행까지라도 저희가 해서 좀 특전을 부여하고,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職制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번째가 懲戒量定에 관한 規則의 用語가 매우 생경하거나 지금 순화되지 아니한 그런 用語가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드신 것이 무계결근, 지참, 출장미귀 등 이렇게..... 저희는 통상적으로 써 오던 그런 用語입니다만 또 이렇게 처음 대하시는 委員님들이 보기에 매우 생경한 그런 用語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화되지 아니한 그런 용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用語의 改正뿐이 아니고 그 실정에 맞도록 量定規定을 전면적으로 改正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改正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도 많은 충고나 저희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懲戒量定規則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改正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市民不便申告事務處理規程에 보면 엽서가 있는데 아직 그 엽서의 文案 자체가 정말 한 번도 손을 안 본, 89年度에 制定되고, 거기에서 用語도, 또 主管部署도 企劃監査課로 區廳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전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으로 찬찬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로 봅니다.

市民不便申告葉書는 올림픽이 끝난 뒤에, 高 建 市長 계실 때 創案해서 매우 활성화 됐던 制度입니다만 그 뒤에 좀 有 耶無耶되고, 특징인, 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한 번 規定을 지금 현실에 맞도록 챙겨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文案이나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規定은 고치도록 그렇게 報告를 드립니다.

큰 네번째가, 매우 저희 民願擔當官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또 많은 그런 격려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民願을 處理함에 있어서는 아주 不 偏不黨, 공정하게 모든 일을 市民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報告를 먼저 드리면서 靑瓦臺에 接受됐든, 監査院에 接受됐든, 市廳에 接受됐든, 어디에 접수됐든 저희가 民願을 處理함에 있어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고 公平無私하게 정말로 公明正大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崔光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

監査室長の 答辯에 이어서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해 주세요. 金種來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種來 委員; 金種來 委員입니다.

監査室에서 監査自體機能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監査專門要員, 이를테면 化工이나 稅務 電算 등 많은 專門要員을 확충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부분에서는 午前에 우리 同僚 委員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빈약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는 答辯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監査資料를 제가 죽 훑어 보니까 監査院監査結果報告書 指摘事項資料하고 그 다음 우리 서울市에서 한 自體監査結果報告書 指摘事項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建築이나 土木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市 監査室 監査結果報告書 지적사항에서는 거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監査院 監査結果報告書에서는 전문적인 指摘事項이 많았는데 우리 서울市에서는 전문적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專門要員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專門化되어 가는 行政體系에서 능동적으로 監査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監査員의 자질향상과 더불어서 專門性이 提高되어야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質問에 임하고자 합니다.

監査室에서는 陳情이나 民願이 있는 곳에서 직접 調査를 해서 市民들에게 市政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江西區民體育센터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江西區民 2,267名이 集團民願을 提起하고 또 농성을 해서 이로 인

해서 公權力까지 투입된 事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市 監查室에서는 이로 인한 아무런 是正措置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市民들에게 行政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江西區民體育센터 問題는 서울시 補助金이 16億원이나 出捐됐기 때문에 市 監查室에서는 集團民願이 提起되지 않더라도 市補助金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市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大型工事이기 때문에 契約審議委員會 開催 前, 設計, 施工, 竣工 등 建設分野의 計劃 推進段階別 監查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監查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職務遺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區民體育센터 建立은 地方自治法 第35條에 의해서 公益施設의 設置 및 管理處分에는 當亥 自治團體의 條例에 의해서 議決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江西區에서는 이러한 行政節次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무효인데 이러한 事項을 民願 提起時 우리 서울시 監查室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集團民願 提起 및 長期間 농성 등, 공권력 마찰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관계로 地域住民들이 苦衷處理委員會에 民願도 提起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請願에 대해서 苦衷處理委員會에서도 이렇게 答辯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처음 위치에 선정이 산림훼손이나 운동시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므로 건립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事業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 변경을 하라고 江西區廳에다 勸告를 했습니다.

그러나 江西區廳에서는 이러한 苦衷處理委員會 勸告를 받아

들이지 않고 또 再審을 요구했습니다. 再審을 요구한 상태에서 또 그 후 다시 기각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직 江西區民體育센터는 다른 곳으로 위치 선정도 하지 못하고, 또 工事中斷 상태에 놓여 住民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로 인해서 區民體育센터 건설에 대한 解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남綜合建設하고 江西區에서 의뢰해서 調達廳에서 工事 締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違約金을 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違約金은 과연 누가 예를 들어서 賠償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확고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監查室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資料에 의하면 심지어 동네 體育施設까지 管理實態를 파악해서 問題點을 改善하도록 主管部署에 통보하고 是正措置까지 했는데 이렇게 큰 大型工事, 또 住民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生活體育 또 市補助金, 16億원이 出捐됐는데도 아무런 監查室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處事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住民들의 集團民願 제기와 市 補助金으로 이뤄진 大型事業을 市 監查室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떠한 措置를 취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는 監查室長이 午前 報告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투명성 있는 열린 行政, 신뢰받는 公開行政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路上駐車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路上駐車場이나 路外駐車場 설치하는 자동차 交通의 원활을 기하며, 公衆의 便宜를 도

모하고 都市機能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路上駐車場이나 路外駐車場을 설치하는데 이는 당해 自治團體에서 條例를 정해서 設置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市에서는 各區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서울市 本廳에서 條例에 대한 準則을 내려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4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條例 準則도 내려보내지도 않고 各區에서는 옛날 서울市 條例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法 改正이 91年 12月 14日에 돼서 92年 7月 1日부터 當該 自治團體 條例로..... 뭐 이런 부분이 있지요. 料金, 料率, 徵收方法 利用時間 이런 부분을 그 地域 特性에 맞게끔 當該 自治團體 條例로 제정하고 사용할 수 있겠끔 되어 있는데 서울市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속해서 準則을 내려 보낼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 準則도 내려 보내지도 않고, 또 각 구에서는 옛날 관치행정 그대로 받아서 서울市 條例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違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市 監査室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도 적발하지 않고 그대로 4年間 방치했다는 것은 監査室의 그 동안 行爲自體가 무엇인가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路上駐車場뿐만 아니라 路外駐車場도 같이 條例로서 制定하게 되어있어요. 路上駐車場을 안 만드니까 路外駐車場 條例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市에서 交通難이 침체되고 都市交通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근본 목적인 路上駐車場이나 路外駐車場이 설치 근거 목적인데 路上駐車場이나 路外駐車場, 當該 自治團體 各區에서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路外駐車場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 委任된 事項을 各 自治區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路外駐車場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裏面道路나 또 골목길에

駐車를 충분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條例規程 未整備로 지금 골목길이나 裏面道路에 車가 더 많이 들어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 잘 감지해서 監査室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監査室에서는 監査 적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항상 監査를 실시하고, 또 政府 施策에 따라 수시로 調査 活動을 시행하고, 聖水大橋 崩壞 후 各種 施設物을 육안으로 하면 정확성이 없다고 해서 토목학회나 건축학회 등 專門家의 點檢이 이루어졌다고 작년 行政事務監査에서 이렇게 報告를 했습니다.

그리고 各種 構造物이나 施設物에 대해서도 聖水大橋 붕괴 후 일제히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긴급 補修를 하거나 향후대책을 강구하여 措置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또 聖水大橋 崩壞이후 各種 構造物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主管部署에서 點檢을 하고 있는 것을 監査室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市長과 議會에 報告書를 제출한다고 작년 行政事務監査에서 報告를 했습니다. 이 報告書를 議會에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으면 그 때 당시에 제출한 내용 중에서 三豐百貨店의 실태점검은 어떻게 이뤄졌다고 報告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業務計劃報告에 의하면 市政 最高 責任者의 指示事項 이 행실태 등을 철저하게 監査하고 앞서서 하는 卓上監査에서 발로 뛰는 現場監査를 위주로 감사방법의 轉換을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듯이 三豐百貨店 붕괴사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三豐百貨店 붕괴사건은 더 이상 제가 言及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디 이것뿐입니까? 同僚委員이 市政質問에서 밝혔습니다만 上水道資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數億원의 서울시 財産에 損失을 가져 온 것도 이런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監査室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현장 위주의 實質監査가 아닌 형식적인 桌上監査에 의해서 이러한 산물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또 발로 뛰는 現場監査가 이뤄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浦空港 확장지역으로 내년에 이주할 江西區 果海洞 住民들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근에는 言論에도 報道됐습니다만 江西區 果海洞 住民들이 水質檢査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98 곳 중 9 곳만 水質檢査를 마치고 나머지는 水質檢査를 거부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地下水 水質檢査를 果海洞 地域住民들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에 살면서도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농촌하고 연결된 부근에서는 이 지하수 水質檢査가 비싸기 때문에 水質檢査를 지금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監査室에서 지역주민들의 隘路事項이라고 청취해서 한 번 監査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강서구 果海洞 地域住民들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단지로 이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전을 해요. 그런데 금년에 비싼 돈 들여서 이 水質檢査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地域住民들이? 그런 어려운 事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어려운 事項이 關係法規하고 어떻게 절충되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서 地域住民들한테 아까 이런 過怠料 이런 부분이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豫算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豫算算定委員會에서도 지적된 事項입니다만 不用額이 9,450億원인데 이 9,450億원은 전체예산의 10%를 점유합니다. 이는 豫算編成過程에서 各種 經費에 대한 표준화, 또 규격화 등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事業計劃編成段階에서부터 事業計劃 등을 면밀히 검토, 또 분석해서 不用額이 과다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財源이 死藏되지 않아야 할텐데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死藏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 開發이나 福祉受惠를 늦게 가져온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各 部署의 監査와 調査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다 不用額이 발생되지 않도록 制度的으로 改善方向을 제시해서 이런 과다 不用額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監査室에서 주관적으로, 총체적으로 규명해서 各 部署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年度 決算에서 8,079億원이 서울시 預金 평균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資金이 公共預金 및 定期預金만 되어도 預金利率이 1%에서 8.5%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서, 이 資金을 특정 금전신탁에 집어넣을 겨우 12.5%까지 이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利率이 낮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本委員이 계산해 보니까 약 40億원의 損失을 서울시에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當初事業計劃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事業推進 진도에 따라서 預金の 배정과 長短期 資金

수급전망을 분석해서 알뜰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유휴자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시켜서 利率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慣行的으로 이뤄진,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制度的으로 개선을 하지 못합니까? 이런 制度的인 改善部分이 바로 監査室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制度的인 改善이 이뤄짐으로써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經營評價에 의한 經營合理化의 생산성 行政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監査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또 유도해서 앞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預金平均殘額에 대해서 고수익 상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高光哲 委員 質疑하십시오.

○高光哲 委員; 高光哲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의 수준 높은 行政事務監査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쉬운 문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최근에 外部監査關係의 어떤 人士와 私席에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거기에서 서울시 監査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어떠한 발전적인 평가를 해 줘서 상당히 반가웠고, 앞으로 監査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監査室長께서 監査를 하실 때 業務報告를 하실 때 市民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어떤 중점 監査對象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아주 바람직한 監査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市民들은 아주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잇단 大型事件, 事故로 인해서 다리를 건너기도 불안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살기도 불안하고, 백화점에 가기도 불안하고, 또 地下鐵 타기도 아주 겁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時代 상황에서 本委員이 살고 있는 巨余·馬川 地域에 地下鐵 5호선 馬川驛이, 종점입니다만 馬川驛이, 그 出入口가 하나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住民들 얘기는 머지 않아 이용할 그 地下鐵 馬川驛이 구멍이 달랑 1개인, 그것도 종점인데 그 出入口 하나를 이용하는 데 대한 그 불안심리가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 臨時會 본 委員會에서 消防本部長에게 地下鐵 5號線 馬川驛 출입구 1개와 관련하여 豫防消防 및 災難豫防次元에서 그 안전성 여부와 향후대책을 質疑해서 書面報告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書面答辯書에 의하면 消防本部長이 11月 1日 現地를 직접 확인해서 관찰을 해 본 결과, 地下鐵 馬川驛舍 출입구 1個所로는 有事時 피난 및 消防作戰上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에 반대방향으로 출입구 설치를 추진토록 요청했다는 그러한 書面答辯을 本委員이 받았습니다.

監査室長께서도 擔當監査官과 함께 現地를 직접 확인해서 地下鐵 馬川驛舍 출입구 1個所 문제 해결이 改善 措置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監査室長께서는 市民의 어떠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그러한 監査推進計劃을 발표하셨습니다.

本委員의 地域인 巨余·馬川에는 城內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城內川이 현재에는 복개되었지만 城內川이 지금 主要 幹線道路가 되어서 많은 住民들이 그 城內川을 지금 이용하

고 있습니다만 그 복개된 城內川을 통과해서 바로 蠶室驛으로 빠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현재 한 10萬 巨余·馬川 住民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노선조정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현재 巨余·馬川 住民들은 성내복개천을 통과하는 車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千戶洞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蠶室驛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개천을 경유해서 바로 松坡警察署, 蠶室驛까지 간다면 10分 내지 15分뿐이 소요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노선을 제쳐놓고, 빠진 이유를 住民들이나 本委員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문제에 대해서도 監査室長께서 직접 챙겨서 住民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監査의 기본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世根 委員長, 金在京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在京;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在仁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在仁 委員; 우리 監査室長께서도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監査室에서도 알아야 하겠기에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울特別市內 幹線道路, 裏面道路, 골목도로에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도 下水道맨홀, 上水道맨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맨홀 뚜껑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간으로 마모돼서 車만 가면 덜컹하는 소리가 진동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査察하셔서 맨홀 뚜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道路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建設事業所가 우리 特別市안에 4個가 있는데 6個 區를 한 事業所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事業所에서 道路 소폭, 작은 工事, 가령 비가 와서 파헤쳐졌다든지 또는 補修를 하기 위해서 事業所에서 보수를 합니다. 補修를 할 때 트럭에다 아스콘을 담은 포대를 싣고 와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서 補修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로 밟아서 補修를 할 때 롤러로 밀어도 잘 안 되는 그 곳을 발로 밟아서 補修를 하고 있는데 한 몇 십년 전에 어린아이들 머리에 부스럼이 나면 보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道路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왜 車가 가면 덜컹하고 도대체 이것이 補修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잘 보셔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두가지만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在京; 補充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車星煥 委員 質疑하십시오.

○車星煥 委員; 民選區廳長 취임 이전과 현재의 監查範圍, 監查對象의 비교 및 문제점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民選區廳長 취임 이전과 현재의 監查範圍와 監查對象에 있어서 어떤 法的인 변동이나 條例上 規則上의 어떤 변동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民選區廳長 취임했다 해서 지금 監查機構가 축소되고, 물론 監查機構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김이 빠져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民選區廳長이 출범했기 때문에, 時代가 출범했기 때문에 區廳 監查는 전적으로 區廳에 맡긴다 그런 취지인 것은 좋은데요, 그러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市 傘下 職員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一問一答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다른 분들의 答辯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區 監査室長이 5級인데, 行政職 5級인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동일선상에 있어서 各 課같은 데 또는 上位職級인 局長, 그런 분들을..... 局長들은 사실상 監査의 死角地帶가 아닌가,

市 監査에서도 빠지고, 區 監査에서도 빠지고 그런 점, 그리고 사실 人事問題도 지금은 區 자체 내에서 지금 區廳長 수하로 들어가서 區廳長의 사인 없이는 各 人事交流가 區別로도 또 市하고도 交流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일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隘路事項과 또 앞으로의 計劃에 대해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서울市 商會은행 資金運營에 대해서는 아까 質疑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答辯 봐 가면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資料에 페이지가 정확히 안 나와서 지금 제가 한 번 봤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監査室에서 監査 死角地帶가 또한 군데가 그 동안 거론된 것입니다만, 전번 監査室長님 答辯에 人事問題에 대해서 監査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監査院에서 人事問題는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監査院에서도 별다른 그런 人事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資料가 있으면 資料를 주시고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京;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崔光雄 委員 質疑하십시오.

○崔光雄 委員; 午前에 이어서 2次로 계속 質疑하겠습니다.

먼저 監査請求制度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第79回 臨時會 때 처음으로 監査請求制度에 대해서 우리 室長님께서 報告하셨고, 第79回 臨時會 때 공신력 있는 市民團體, 請求主體가 여기서 第80回 臨時會 때는 우리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하고 是正要求한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市民團體에 모든 市民團體에 개방한다고 業務報告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資料要求를 한 것이 있습니다. 130번. 監査請求制度를 施行또는 예정인 他 自治團體 추진상황, 事業內譯 및 주요 外國 10個 國 이상 사례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個 國 이상 이 부분도요. 監査室에서 자체로 해 놓은 것이 없으면 市政開發研究院이라든지, 他 機關에 協助公文 보내서 해야지요. 연구를 해야지요. 先進 外國의 좋은 制度가 있으면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市民監査請求制度는 自治團體에서는 우리 市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制度로서 지난 7月 31日 監査室 業務報告 이후 新聞과 放送에 報道되어 龍山區를 비롯한 自治區에서 市民監査請求制度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확인한 바 龍山區 監査室에 전화로 問議를 해 봤습니다. 9月 15日부터 市民 30名 이상이 請求하면 監査를 할 수 있도록 施行 中에 있어요. 龍山區 監査室에서 施行 중인데 우리 서울市 監査室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資料로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主務課長이 누구입니까? 전화 한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議員들이 잘 보는 市政新聞 9月 15日字에 큼지

막하게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리고 이 資料에 보니까 日本에서는 一定數, 有權者의 1/50 이상의 住民이 監査請求制度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監査室 자체로 안 되면 市立大學校라든지, 市政開發研究院이라든지 의뢰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本委員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市民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質疑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부분 확인 되잖아요. 그렇게도 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시고, 安全問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趙淳 市長의 指示事項 1호부터 제36호까지인가요, 즉 제출된 資料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指示事項 제1호에서 地下鐵驛, 市民아파트, 극장, 백화점 등 多衆利用施設 安全管理 철저 지시를 한 이래, 多衆利用施設 安全管理 철저 지시가 제5호, 제11호, 제14호 등 4차례, 指示事項 제8호에서 市民아파트 安全診斷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또 事故가 날 수 있다라고 警告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市民아파트 關聯 指示가 무려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니다.

그 밖에 防災管理體制 구축 등 安全管理分野 指示事項이 시달된 것이 총...... 제출된 資料 제36호 중에서 41.7%인 15번이나 돼요. 거의 幹部들 모임 자리에서 두 번에 한 번꼴로 安全管理, 安全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얘가지요. 이렇게 중요하게 安全管理에 대해서 指示事項으로..... 이 指示事項 推進 實績 點檢 우리 監査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이 指示事項 中에서 다섯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市民아파트, 本委員의

인접 地域區입니다만, 제 地域區는 아니고, 未解決民願으로, 3년이 넘도록 民願審議委員會에 계류 중인 道峰區에 도봉시 민아파트라는 것이 있어요. 建設委員會 鄭炳權議員 地域區인데. 나가보면 정말로 한심해요. 정말로 우리 市長께서 강조한 대로 安全側面에서 어떻게 적당히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빠른 解決策을 강구해서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民願審議委員會의 심의결과를 보니까 新工法 施行 등 被害對策을 강구하고 再建築은 불가하므로 市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좋은 결론 내놨더라도. 좋은 결론만 내 놓으면 뭐해요, 施行을 해야지요? 우리 市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설마 설마 하다가 큰 일 한번 나뉘어야 됩니까? 다른 市民아파트도 마찬가지로요, 즉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鍾路區에서는 위험 판정 받아서 세입자를 내 보내고 가옥주가 다시 들어갔어요. 물론 그 뒤에 措置事項 보니까 다시 이제 가옥주도 이사를 시켰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三豐百貨店으로 큰 事件 한 번 치르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綜合的인 安全管理側面에서 한 번 살펴 봤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市長 任期 開始로부터 3個月 동안 서울市內 대형 및 多衆利用施設物 1,269동에 대해서 安全管理點檢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本委員이 갖고 있는 資料 中에서 종합판정을 받은 426棟의 施設物 中에서 龍山區 11個 棟, 소위 盧泰愚 秘資金이 흘러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中區의 센터빌딩을 비롯해서 12%에 달하는 51個 棟이 C級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安全管理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施策點檢 활동의 일환으로 監査室에서 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施設物에 대해서 정밀한 安全診斷을 실시했는지 그 여부, 그리고 對策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計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月 17日 第79回 臨時會 때 監査室業務報告에서 우리 室長께서 주요한 施策點檢計劃으로 10月 中에 公約事項 및 指示事項 履行 추진실태를 점검하겠다고 報告한 바 있습니다. 午前에 本委員 公約集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指示事項은 뭐 특별지시, 회의지시, 기타 수명사항이고, 公約事項 13個 分野, 50個 課題, 143個 施策이라고 분명히 報告한 바가 있습니다. 이 業務報告資料에, 計劃했다고 報告한 지가 석달 전입니다. 10월에 公約事項 및 指示事項 이행 추진실태 점검했습니까?

우리 民選市長 따로 幹部들 따로 논다고 言論에 步道되고 있습니다. 창피스런 일입니다. 지난번, 얼마 안 됐습니다. 地方稅 세목교환 추진하고 그럴 때 幹部들이 안 움직인다고 趙市長께서 역정낸 일이 都下 主要 日刊紙에 報道됐어요. 일개 江南區廳長, 瑞草區廳長한테, 그 사람들 로비력에 趙市長이 당하는 것을 우리 市 幹部들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서울市 幹部들의 현주소입니다.

午前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포청천을 자임하고 나선 우리 趙淳 서울市長의 전호위들로서, 우리 市長께서도 이 指示事項에서 서울市 局長이라면 결국 그 부분에 市長의 대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分野에서는 市長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敎育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月 18日 市長 指示事項 제26호 56번입니다. 區廳長과이

간담회 결과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전 幹部들에게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이 좁은 곳이지만 그래도 各 地域마다 특성이 있으며, 우리는 무엇인가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風致地區로 지정된 곳이 오래되어서 江山이 변했는데도 書類上으로는 風致地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無事安逸이라고 할까요, 伏地不動이라고 할까, 질타한 내용이라고..... 이런 사례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들어봤는지, 1年하고도 한달 되었습니다. 꼭 오늘로, 작년 10月 21日이니까, 聖水大橋 붕괴가. 그 때 무학여중 1名, 무학여고 8名 도합 9名の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의 무심함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아무 罪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꽃다운 어린 나이에 죽어 갔습니다. 그로부터 그 원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 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行政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있는 學校에 定員을 채워야 되고, 남는 學生에 學校는 모자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數百名이 聖水大橋를 건너서 江北으로 통학을 해야 되고, 미아리고개, 대표적인 출근길 병목지역인데 이 滿員버스, 파김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登校도 하기 전에.

96年度 道峰區 地域 中學校 졸업학생 7,133名 중에서 4,039名만이 道峰區 소재, 같은 區소재 高等學校에 배정되고, 무려 43.4%에 해당하는 3,094名の 아이들이 미아리고개 넘어 노원교 다리건너 힘들게 通學하고 있습니다.

江南쪽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金明坤委員님 地域이지요, 江東區 中學校 졸업자 1萬 553名 中에서 16.9%인 1,782名이

나 천호대교를 건너고 올림픽공원을 지나 高等學校를 通學해야 할 처지이예요. 우리 高等學生들은 그래도 몸집이 크니까 滿員버스 타는데 버틸 힘이라도 있지요. 當該 自治區에서 졸업한 國民學生이 當該 自治區 中學校에 가는 비율이 90%가 안 되는 區를 보니까 中浪區, 麻浦, 江北 龍山, 江西, 銅雀 6 個 區나 되고 특히 中浪이나 陽川은 8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 이것을 추적을 해 봤습니다. 本委員이. 政府 方針입니다. 首都圈 人口抑制策, 教育部方針으로 서울市內 公立 人文系 高等學校 新設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대안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 需要가 모자란 곳에서 넘치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學校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市에서, 물론 教育은 教育廳이 담당하지요. 서울市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聖水大橋를 건너서 通學하는 그 무학여고생 9名 일단의 책임은 우리 서울市에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鐘路에 대신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本委員은 도면을 한 번 보고 그리고 現場을 한 번 가 봤습니다. 風致地區로 남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 일대는 이미 다 풀려 있어요. 風致地區 해제하고 學校問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私學이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費用을 風致地區 해제해 주면 이 땅값 차액 가지고 學校 移動費用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 市內 私學들에게 그런 정도 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선생님들 月給을 제대로 줄 능력도 없는 데가 허다한데, 자력으로 옮길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돈이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죽 추적을 해 봤을

때 該當部署에서는, 어느 部署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部署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누가 特惠를 받고 안 받고 그런 次元의 문제가 아니에요, 聖水大橋에서 숨겨간 9名の 우리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이예요, 該當 部署에서 소극적이면, 市長이 지시한 바도 있고, 點檢次元에서 우리 監査室에서 좀 나서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趙淳 候補의 公約事項도 보니까 이 10大 主要政策 目標中에 이 教育部分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鍾路 등 도심지역 취학대상 人口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것이 해결하는 것이예요. 어차피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직접적인 豫算으로 지원을 못하면 그런 다른 대안, 좋은 案이 그 學校라든지, 一線 學父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면 우리 서울市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提案한 것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學校는 教育廳이 담당하니까 하고 핑개치지 말고, 우리 市에서 教育部分 담당하는 部署가 없습니다. 무학여고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좀 한 번 이것은 點檢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年度 이후에 風致地區 해제현황 자료를 本委員이 받아 봤습니다. 靑瓦臺 어찌고 핑계대는데 靑雲洞에 보니까 한 1,500坪 風致地區 해제한 실적도 있어요. 그리고 총 91年度 이후에 다섯 곳에서 약 8萬 9,000坪 다 해제했습니다. 작년에 崔秉烈 市長 檀國大 移轉問題는 지나친 特惠라고 해서 중단한 바 있지만 이것은 작은 것이고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點檢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民願審議委員會 問題입니다.

民願審議委員會 위촉직 委員 前·現職 委員資料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前職委員은 뭐..... 이것도 안 왔어요. 現職 위원 31名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住居地別로 漢江以北이 8名이고 漢江 以南이 20名이고, 京畿道 新都市가 한 3名입니다. 25個 區가 있는 서울에 12個에 걸쳐서 審議委員들이 포진해 있고, 죄송합니다. 特定 區를 지적해서. 特定 강남구만 8名이나 되어 있어요. 소위 8學群 지역이 14名이고, 관련된 各界 人士들, 그 동네만 살아요? 최초로 江南 개발 할 때 江北 사람들이 낸 税金으로 開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江南 위주의 政策이 곳곳에서 나타나 하다 못해 이런 데서부터 나타나요.

작년 速記錄 보니까 都市整備委員會 都市計劃審議委員 江南 편중을 질타한 議員들의 發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是正이 되었는지. 都市計劃도 江南에 편중, 이것도 서러운데 民願까지 차별 대우하기예요?

都市再開發이라든지, 開發需要가..... 이제는 江南 開發은 완료됐고, 오히려 江北地域이 더 수요가 많습니다. 미원度も 더 많을 거예요, 분류해 보면. 民願擔當官室 係別 分掌 잘 되어 있더라고요. 民願處理 1係하고 2係 나눠서 1係는 漢江이고, 2係는 漢江 以南, 이렇게 맡게 하면서 委員會 委員 위촉할 때는 그런 것은 고려 않고 감안 안해요?

그런데 또 專門家들..... 출석률 한 번 체크해 봅니다. 實務 專門家들로 바뀌어야 바빠서 잘 나오지 않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뭐 理論이나, 원칙이나 앞세우고 하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지, 정말로 是正바랍니다.

다음은 消防本部, 消防本部 하는 날 또 지적을 하겠습니까만 不法行爲者가 榮轉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三豊事故 收拾功

勞를 우리 消防本部에서 세웠다고 하지만 一線 救助隊員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9月 25日부터 10月 6日 까지 江南消防署 監査結果報告書를 보니까 85年 역삼과출소 敷地買入 後 부속된 建物を 사용허가도 없이 8年 동안 職員 3名이. 45日 동안 姜元道 消防本部長을 무단거주토록 했다는 指摘事項을 적출하였습니다.

이 姜本部長이 釜山本部長으로 있다가 올라와서 94年度 우리 豫算決算 때 우리 金種來 委員으로부터 豫算轉用해서 전세방을 8,000萬원에 얻었고,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지적 당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지난 10월에 三豊事故 收拾功勞는 뭐 혼자 세웠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PK 實勢地域 출신인지는 몰라도 內務部 消防국장으로 榮轉해 가고, 곧 內務部와 그 소속기관 職制 第29條를 改正해서 內務部 消防局長 자리를 소방총감 1級 상향조정한다 그래요. 그 자리로 榮轉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난 11月 9日 消防의날 記念式에서 이 사람이 紅條 勤政勳章을 받았어요, 더욱 깜짝 놀랄 일은. 물론 消防本部長이 國家職 公務員이어서 大統領이 任命權을 갖고, 훈장 및 大統領 마음대로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할말 없지요. 그러면 國家職이면 국가사무나 하고 國費 갖다 써야지 왜 서울시 돈 축넵니까? 왜 法規를 위반해서 무단으로 서울시 財産 사용하고, 豫算轉用하고 그래요? 잘못했으면 응당한 처분 받아야지요. 本委員이 보기에 잘못도 했고 공도 세웠어요. 그러면 뭐 서로 상계하면 그냥 가만 있으면 되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榮轉도 시키고 훈장도 주고, 다른 公務員들 살맛 안 나서, 정말 勤務할 맛 안 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特定地域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 받는 것밖

에 더 돼요? 적발된 國家職 公務員들 非違를 어떻게,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길래, 政府쪽에 통보 안합니까? 監査結果措置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制度提案 하나 하겠습니다.

監査2擔當官室 監査1係에서 市長關心事項 및 主要施策事業 推進現況을 點檢하지요? 調査擔當官室 調査3係에서 主要施策의 點檢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監査室長 아까 얘기한대로 第79回 臨時會 때 公約事項 履行實態에 대해서 點檢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9月 21日 第80回 臨時會 事業報告 때 向後計劃으로 10月 中에 指示事項 추진실태를 點檢한다고 했어요. 잘 되어 갑니까?

아까 業務報告에서 이용률 높은 120 民願電話 회선 96年度 증설계획, 그리고 뭐 退職公務員을 모니터 要員으로 활용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동안 계속된 業務報告를 죽 살펴 보니까 120 民願電話, 이 전화 한 통화로 不便事項 신고상담 등 이용 활성화가 되어서 書信이나 訪問民願이 감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한 바 있지요. 자랑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公約事項, 施策點檢分野, 그때 그때 指示事項, 너무나 방대해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監査室 職員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 부분감사 이런 것 다하면서 또 點檢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趙市長은 公約에서 市廳 365日 열린 市民廣場을 설치한다, 市民의 民願을 接受, 토론하여 市政에 반영한다, 地方行政 ombudsman制度를 도입한다, 市民의 苦衷을 市民 입장에서 처리한다, 이런 등등 公約을 했어요. 어떻게 公約 이행해요? 모순이잖아요, 역량은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좋은 制度가.

민간분야에 첨단인 방법들을 도입하면 돼요. 行政도 그런 도

입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ARS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Auto Research Statistics 또는 Auto Reverse System, 우리말로 하면 자동조사장치 또는 자동응답장치라는 것이지요. 지금 施行하고 있는 120 民願電話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ARS 시스템입니다, 소위. 이것은 다만 지금 120 民願電話는 市民들이,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限界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쪽에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市民들 輿論調査도 하고, 자동으로. 市政弘報도 하고 다양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市長님께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짚막하게 녹음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된 전화번호에 다 해 줍니다. 우리 監査室長이 어느 區, 特定區의 公務員 관련 非理가 첩보가 들어 와서 調査를 해야 하겠다, 市民들한테 輿論 좀 들어 봐야겠다 하면 監査室長 이름으로, 저는 서울시 監査室長 아무개입니다.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까 협조 해 주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참 히트 친 것이 지난번 6.27選舉에서 자동 輿論調査한다고 해서 크게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개념들을 우리 公務員들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經濟行政..... 이 시스템. 뭐 주관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금액 얼마 안 돼요. 상상보다 싸입니다, 보니까. 우리 施策 弘報와 관련해서 公報官室하고 합동으로 購入을 해도 좋고, 우리 監査室에서 이런 것 한 번 도입을 해서 좀 새바람을 일으켜 보세요. 行政도 첨단 기법을 한 번 도입을 하고, 서비스를 찾아, 市民 곁으로 찾아가고 이런 인식전환, 發想轉換해야 되지요.

다음은 개인택시 車庫地證明制에 대해서 간단하게 言及하겠습니다. 資料를 보니까 확보 대상이 3萬 583名. 미확보자가

2,299名, 7.5%가 미확보했고, 확보자 중에서 本委員이 보기에는 路外駐車場, 私有地 賃貸, 말로만 형식으로 賃貸한 거예요. 뭐 20萬원, 30萬원 주고 자기 住居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형식적으로만 확보한 것, 그거 빼니까 建物 附屬駐車場이라든지 제대로 확보한 것이 한 51.4%, 수치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확인 할 수도 없지만 수치만 가지고 확인해도 이런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交通局이라든지 各 自治區에서는 車庫地證明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보하고 있는가 못 확보하고 있는가 위에다 報告하려고, 建設交通部에 최종적으로 報告하려고, 實績 높이려고 그 경쟁만 하지 정말로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이런 制度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그런 각도에서 點檢하지 않아요. 우리 監査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實態監査를 죽 한 번 해서 정말로 자기 住居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말이 個人事業者이지 自家住居 비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셋방 사는 사람들이 不知其數라고요. 당연히 자기 駐車場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개인택시 車庫地證明..... 展示行政, 統計行政, 뭐 위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自治區에서, 交通局에서 이거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同僚委員이 지난번에 市政質問했습니다만 交通局長의 答辯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데 監査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화점 非理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8月 28日부터 9月 20日까지 실시한 多衆利用建築物 認·許可 處理實態審査에서 95년도 1月 5日자로 都小賣業振興法이 改正되고 7月1日부터 施行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 開設許可 權限도 시장 및 대형점의 開發許可 權限과 같이 서울 特別市長에서 各 區廳長으로 委任됐습니다. 왜냐하면 事後 指導監督을 하는 데 있어서 市로서는 人員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11월에 消防本部도 마찬가지로 백화점 부분을 資料要求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本委員이 다니면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 봤습니다. 아무 제재도 없이 막 태워요. 區廳으로 權限委任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事後指導監督할 수 있다고 그래서 權限 委任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不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 市內 백화점들의 현주소입니다.

일곱 군데를 監査를 했더라고요, 實態點檢, 實態調査 일곱 군데를 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計劃을 말씀해 주시고요.

창고 設置基準 면적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필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여 비상통로나 계단 등에 물품을 적치한다, 이 부분은 消防本部할 대도 지적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法令을 어떻게 改正 建議하였는지, 制度改善 대상이라고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만 法令改正 建議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서울 市 各區는 백화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1年 동안 各種 稅金 등, 이 資料를 보니까 賦課 누락이나 過少賦課 한 것을 보니까 13件에 9,100萬원인데 그 중에서 백화점이 반에 가까운 6件, 7,270萬원이에요. 80%에 해당됩니다, 금액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實態調査 일곱 군데

를 했는데 일곱 군데 다 걸렸어요. 어느 한 군데 예외도 없
이. 그러니까 이번 일회성으로 끝낼 事案이 아닌 것 같았습니
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點檢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안한 데,
스물 일곱 군데도 계속 좀 해야 되고요.

종합을 해 보니까 不法 他用途 등 사용 500坪 10件, 其他
不法 物件積置 2件, 無斷 增策 등 뭐 온갖 不法 일삼고 있습
니다. 우리 一般市民들이 단 1坪만 不法으로 좀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뭐 하려고 해도 당장 洞職員이
나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백화점한테는 왜 그렇게 칼
이 무더요. 7月 6日 都小賣業 關係規定 改正 施行된 이후에
한달만에 實態調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큰
일이죠, 큰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實態調査해서 적출된 事項에 대해서 11月 30日에 조치한다
고 資料에 되어 있는데 法規가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이번엔
좀 시범케이스로 엄벌을 엄격하게 다스려서 최대한, 최고罰
좀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머지 스물 일곱 군데도 마찬가지로
로.....

그리고 특정업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애경백화점 같
은 데는 그 다음 資料에 나와 있는 9月 25日부터 10月 6日
까지 消防施設 指導點檢에서 또 걸렸어요. 판판이 걸리고 있
어요. 애경백화점이 監査에서 交通行政課, 環境課, 교통유발부
담금, 環境改善負擔金 과소 부과했다고 걸린 바 또 있고, 가
능하면 우리 監査室에서 한 번, 特定業所 뭐 안됐습니다만 한
번 시범 케이스로 식품매장 유통기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保健環境研究院하고 합동으로 責任監査를 한 번해서 제대
로 하고 있는지 한 번 調査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결릴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公害問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폐수배출에 대해서 資料要求한 것이 있습니다. 이 資料는 그러니까 우리 監査室에서 實態點檢이나 監査를 한 事項은 아니고 環境課 資料를 그냥 수합해서 낸 資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배출업소 신도리코, 94年 12月 15日에 點檢을 했는데 먼지가 기준이 스탠다드 m³당 200뮤그램, 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1/10억mg인데 이게 315.4이니까 한 60% 정도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排出賦課金を 217萬 4,870원을 賦課시켰는데 이 關係規定 들여다 보고 뭐 자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만큼이더라고요, 배출부과금이. 是正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是正이 될 때까지 계속 賦課하는,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치도 단순하게 그냥 資料만 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專門家들 설명 들어보니까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 공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위 기준을,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창문 안에는 자기네 工場이든 뭐든 자기 공기이고, 밖은 당연히 나라 공기이지요, 다 통하니까. 정말로 나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폐수배출, 이 부분도 특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연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중앙병원이면 현대에서 운영하는 서울 市內에서 규모가 제일 좋고 제일 훌륭한 病院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폐수나 배출하려다 걸렸어요. 기준 초과..... 그러니까 좀 정말로 公害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安易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盧泰愚 5年 동안, 또 최근 1年 동안 金品授受로 적발된 公務員들 내역을 죽 한 번 훑어 봤어요. 과연 폐수나 대기관련, 그거 뭐 적당히 봐주고 돈 먹은 것이 얼마큼 되나 하고 보니까 최근 1年間 永登浦區 環境課 職員이 排出施設業所 許可處理條, 그러니까 이것은 배출 자체는 아니더라고요. 20萬원 授受해서 輕懲戒 조치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고, 盧泰愚 5年 동안은 2件이 있는데 역시 許可關聯, 업무편의 관련이고, 大氣汚染物質이나 廢水나 排出과 관련해서 排出賦課金을..... 하루에 200 몇 萬원이고 뭐 400 몇 萬원이고 이러니까 엄청난 額數라고요. 그것을 區廳 環境課 擔當職員이 하는데 한달이면 벌써 6·7,000萬원, 엄청난 액수 아니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腐敗의 고리가 항존하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연대의료원 措置事項 보니까 改善內容에 廢水입니다, 現場勤務者의 운전미숙으로 기준초과되었기에 勤務者에 대한 防止施設 운전요령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書類를 한 번 우리 監査室에서 챙겨서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答辯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소위 排出賦課金이 免除되거나 아니면 싸게 먹히거나, 소위 호적과태료를 물릴 때 소위 大學 나온 엘리트라 할지라도 뭐 期間이 지나서, 해태해서 뭐 無知의 所致로 어찌고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專門家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廢水하고 大氣汚染 관련해서 1時間 동안 專門教育 받았습시다. 다 전문가들한테 教育받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監査室에 專門的인..... 이거 保健職인가요, 環境쪽입니까? 아니지요, 醫療쪽이지요?

○監査室長 金太壽; 아니 환경쪽이에요.

○崔光雄 委員; 環境쪽 맞아요? 그럼 專門家 1名 있으니까 시켜서 한 번 實態를 제대로 點檢을..... 특히 區廳 環境課 擔當職員들이 本委員 추측으로는 다른 分野는 엄청나게 非理가 많이 발생하고 적발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3件을 들었지만 주로 許可關聯이고,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는데 1件도 안 걸린 것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實態點檢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京;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監査室長께서는 答辯을 해 주시되 鄭海純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은 質疑하신 委員님들에 대한 答辯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監査室長 金太壽; 네, 좀.....

○委員長代理 金在京; 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鄭海純委員 答辯부터 듣고 中止를 하도록 하지요.

나오셔서 答辯 우선 해 주세요.

○監査室長 金太壽; 監査室長입니다.

午前에 鄭海純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件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먼저 崔光雄委員님께 꾸지람을 좀 들었습니다만 또 鄭委員님께서 監査資料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치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대한 量을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도 報告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성실하게, 치밀하게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제가 自認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資料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資料가 거의 저희 監査室에서 보관한 資料나 저희가 監査한 실적을 가지고 資料를 만들어 드리면 좀더 철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다른 局의 것을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성실치 못한 점이 있었고, 그대로 저희가 資料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불미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것도 自認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鄭委員님께서 監査室의 人員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43名씩 이렇게 많은 人員을 감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崔光雄委員님 答辯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저희가 機構나 組織의 改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市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機構를 조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은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저희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기로는 지금 32名의 職員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줄여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정도의 안을 냈고, 아까도 報告드린 것처럼 崔光雄委員님 말씀할 때 드렸습시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技術職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行政職은 42名을 줄이는 것이고요, 결국. 技術職은 10名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報告를 일단 했는데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더 늘지 줄지는 아직 전체적인 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技術職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建築分野에 係長이 없습니다. 그래서 建築職 係長을 한사람 늘리고, 土木職도 좀 늘리고, 土木職 係長은 있습니다만 職員을 늘리고, 環境職 2名, 機械職 1名, 藥務職 1名, 建築職 3名해서 10名의 技術職은 좀 充員을 했으면 좋겠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計劃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 지금 판단으로는 연말 가 봐야, 연말쯤 돼야 機構가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人員이 줄더라도 저희가 監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또 소수정예화해서 優秀한 職員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것이 民願에 대해서는 處理期間이 있어서 그 期間이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 철저한 체크가 되고 있는데 官願이라는 아까 用語를 쓰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部處間, 各 部署間 업무협조로, 또 機關間 業務協助로 그렇게 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委員會를 거친다든지 審議會를 거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한 期間을 확일적으로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民願은 철저하게 챙기고 있고 또 期間이 너무 도과될 때는 經緯를 받고, 아주 부실한 職員에 대해서는 懲戒 등 警告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部署間的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監査活動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1년에 한..... 그러니까 上下半期 나눠서 民願처리 實態點檢을 하면서 部處間的 협조사항도 같이 監査를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報告드립니다.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하는 일은 없고, 같이 저희가 民願實態點檢을 할 때 같이 하고 있다는 報告를 드립니다.

세번째, 質疑해 주신 것이 民選市長 출범 이후에 非理가 적발되어서 身分上 조치가 147名이나 되는데, 또 有功 등으로 표창한 職員은 20명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이게 좀 균형

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垂範事例를 발굴해서 優秀한 公務員을 표창하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좀 褒賞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발굴하는 垂範事例는 사실상 監査를 나간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로 숨겨진 有功者가 있더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組織이나 市民에게 많은 그런 기여를 한 이런 事案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훌륭한 有功을 한 公務員에 대해서는 수시로 每月1회씩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監査 나가기 이전이라도 표창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市政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罰을 받는 職員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賞을 받는 職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찾아낸 사람들은 監査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제한적으로 매우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委員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委員님께서서는 저희 公職先輩시고 해서 항상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垂範事例나 優秀公務員을 많이 찾아내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月 中 業務報告를 할 때 LP가스 點檢을 한다는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리고 그때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챙겨 볼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경향신문에 보도가 뭐 연일 되고, 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야 되겠다 해서 産業經濟局의 燃料課하고 恩平區 등 6個 自治區에 대해서 매설된 심도라든지 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업무에 대해서 精密監査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이미 6個 區에 대해서 監査計劃이 확정되어 있던 狀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추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를 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 地域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특별한 監査를 할까 합니다.

그때 또 金明坤 委員님께서도 江東區를 특별히 監査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마침 江東區는 計劃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긴 했습니다만 永登浦區 新吉 4.5.6洞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배관의 심도나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는 문제, 또 각종 외배관의 적정성, 굴착확인을 통한 철저한 監査를 한 번 신길4.5.6洞에 다시 추가로 기회가 있으면 해서 그것을 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年度 計劃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뭐 보면 市民監査請求制度라든지 監査實名制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좀더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그 중에 하나 提案으로서 監査業務擔當者가 더 훈련을 시키고 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各 區廳間 交換監査는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區廳間의 交換監査는 종전에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地方稅特別監査 때 특히 서로 交換監査를 해서 많은 實績도 거양하고 서로 많은 情報도 얻게 되는 좋은 制度로 운영이 됐었고, 또 저희가 차출을 해서 서울市 監査室에서 조정하고 各 區間 交換監査하는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民選區廳長인 이 시간 현재에는 그것이 매우, 저희가 더 기법을 開發하지 아니하면,

또 法令의 裝備가 없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만 기법을 적극 開發하는 방향으로 또 監査院에서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市가 주관하는 監査에 합동으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할, 그러니까 合同監査體制에서 他區職員이나, 他 部署 職員이 監査要員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區間끼리 서로 交換해서 監査하는 것은 制度的으로 지금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報告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制度는 저희가 적극 보완하고 더 좀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報告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서울시 幹部들이, 幹部들이 먼저 청렴하고 모든 일에 幹部職이 먼저 솔선해야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고 組織이 새롭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과 또 監査室 자체가 改革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舊態依然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많은 것 같다, 監査室 자체가 개혁을 하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對策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만 그것은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신, 또 매우 필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만 幹部職이 먼저 모든 일에 솔선하고 맑아야 밑에서 따라 온다는 것은 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어쨌든 부단한 敎育과 또 부단한 서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監査室만이라도, 우선 저부터 솔선해서, 앞장서서, 제가 率先 垂範해서 모든 일을 개혁하고 制度를 改善하는 데 애쓸 것이고, 監査活動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모든 우리 市 職員들이 똑같이 깨끗해지고 모두 새로운 기풍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부터 우선 저희가 달라지고, 위에서부터 달라져서 아주 새로운 기풍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약속을 드리면서 鄭海純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在京; 수고하셨습니다.

被監査機關의 성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監査를 잠시 中止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監査中止를 宣布 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4分 監査中止)

(16時 30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金在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監査室長의 答辯은 내일 午前 11시에 계속되는 監査時에 듣도록 하고 監査室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中止 宣布하고, 오늘의 日程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6時 32分 散會)

○出席監查要員

吳世根 金在京 金東洙 金明坤
金永俊 金在仁 金種求 金種來
鄭海純 高光哲 成聖鏞 李建行
車星煥 崔光雄 慶奎福

○專門委員

鄭文孝

○被監查機關參席者

監查室長 金太壽